

◆ 미 수은, 중소기업 수출거래 지원 강화

금년 들어 미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지원이 결정된 수출계약의 대부분이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미 수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미 수은은 자메이카에 대한 25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건설자재 및 장비 수출건과 터키에 대한 970만 달러 규모의 92시 이색기 수출거래 지원을 위하여 본건의 대리인인 Allfirst Bank에 대해 2건의 중기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465만 달러 규모의 트레일러 장비 수출 및 150만 달러 자본재 수출 지원을 위해 각각 400만 달러의 중기 포괄보험과 130만 달러의 중기 회전/포괄선적보험(repetitive sales/multiple shipments insurance policy)을 승인하는 등 PNC Bank가 추진하고 있는 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 및 비상위험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 수은은 RZB Financial의 자금지원하에 4개 미국 중소기업이 카메룬의 Neptune of Douala에 수출하는 새우잡이배 2척 및 냉장·냉동고 수출 지원을 위해 200만 달러의 중기 포괄보험을

승인할 계획이며, Raytheon 항공사가 추진중인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Overland Airways에 대한 중고 비행기 2대 수출건에 대해서도 500만 달러의 중기 직접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 수은의 이처럼 활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은 미국 경기의 회복 지연 및 수출경쟁 심화 등으로 자국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정부의 수출진흥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미국 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수은은 현재 Small Business Policy 또는 Umbrella Policy 등의 수출신용보험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과거 2년간 연평균 수출액이 300만 달러 이하 또는 미 중소기업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으로, 이들은 미 수은 보험부 수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Umbrella Policy의 경우 피보험자는 수출자이지만 보험증권은 수출자의 보험계약제반 절차 및 관리사항을 대행하는 대리인(은행, 수출상사, 보험중개인 등)에게 발급함으로써 수출거래 및 보험부보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홍 순 영】